

도전만이 수출의 길 열 수 있다.



(株)光明機電
민수 영업 팀
과장 이상권

오늘 하루도 힘겨웠지만 무사히 넘겼다.
IMF 시대의 경제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
는 것인지 아니면 大寒의 추위를 실감나게 하는
것인지 낫날이 쨍 하도록 날씨마저 얼어붙어 외근
을 나가는 나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올해에도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쌀렁하고 만나는 사람들 마다 제각기 오늘
의 경제현실을 비통해 하며 마치 경제학자라도 된
듯 구구절절이 경제현실을 비판하고 목청올려 열
변을 토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더욱더 서글
퍼진다.

스물일곱 혈기 넘치는 나이에 영업 부서에 발을
들여 놓은지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결
코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다.

그동안의 세월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많은 영업 사원들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 같다. 이제는 고객과의 투쟁이 아니라
자기자신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
느냐?라는 오직 자신과의 싸움에 승패가 달려 있
는 것이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고통
을 땀과 노력으로 얼룩져 승리의 축배를 마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이 현실을 헤
쳐 나가야 될 것 같다.

많은 분야가 열악한 환경속에 놓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몸 담고 있는 중전기 산업은 수

출 기반이 제대로 다져 있지 않아 지금의 현실을 타계하고 살아 남기 위해서는 오직 수출, 수출산업화 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미력하나마 그동안 우리 회사가 수출을 시작하면서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한 사례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적어 보고자 한다.

수출 부서가 따로 없었던 저희 회사는 한번도 수출을 해 보지 못했는데 '92년 초반부터 동남아시아의 바이어들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만 고집했던 터라 많은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 많은 국가의 입찰에 참여했지만 번번히 spec out이라는 뼈아픈 고통만을 맛 보았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과 부딪치는 것이 바위에 계란을 치듯 보잘 것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저희 회사는 꾸준히 수출의 기반을 다져갔고 거의 모든 기술을 일본에 의지해 왔지만 착실한 설비투자 및 꾸준한 국산화 노력으로 전 제품을 거의 100% 국산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수출 경쟁력도 키워 나갔습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95년 봄 미국의 Generator 제조업체인 G사로 부터 한통의 서신이 날아 왔습니다. 10년 이상을 일본 제품에 길들여져 있던 G사가 한국시장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발전기의 운전에 필요한 자동전원절체개폐기(ATS)로 국내 몇개의 ATS 제조 maker가 있었지만 제조기술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했던 저희 회

사를 찾아 주었고 그해 여름 G사의 사장님과 우리 회사의 기술이사가 조선 Hotel 상담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출에 자신이 없었던 터라 상담실을 찾아가기 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일단 부딪쳐 보자는 심정으로 조선히otel로 향했고 저희 제품을 제시 했습니다.

제품의 품질, 가격, 기술력을 인정했는지 meeting 다음날 G사로 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그 길로 Hotel로 달려 갔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산적해 있었지만 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후 그들의 요구에 맞게 U.L Test에 합격, 마침내 '95년 8월 연간 300만불에 5년이라는 계약을 성사 시켰습니다. 수출의 길이 열렸고 품질 우선 정책을 내세워 지금까지 20,000대 이상 수출하였지만 단 한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아 K.M Number one이라는 칭송을 받았고 많은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여 올 해에는 500만불의 수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은 품질고급화만이 IMF 시대에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 기술의 모방을 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과감한 연구개발의 투자만이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며 수출 시장 개척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